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inside **BIFC**

권두칼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 이재민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2023년 ~ 2025년)

2023 하반기 해외 IR 성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UIB Korea 업무 소개

inside **FINANCE**

국내 금융제도 현황

'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특화금융시장 동향

선박 및 선박금융시장 동향

Vol. 31

www.kbfc.or.kr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CONTENTS

inside BIFC

- 04 권두칼럼
친환경 시대의 해양금융과 부산의 역할
- 해양금융연구소 대표 이재민
- 08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2023년 ~ 2025년)
- 10 2023 하반기 해외 IR 성과
- 12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 16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UIB Korea 업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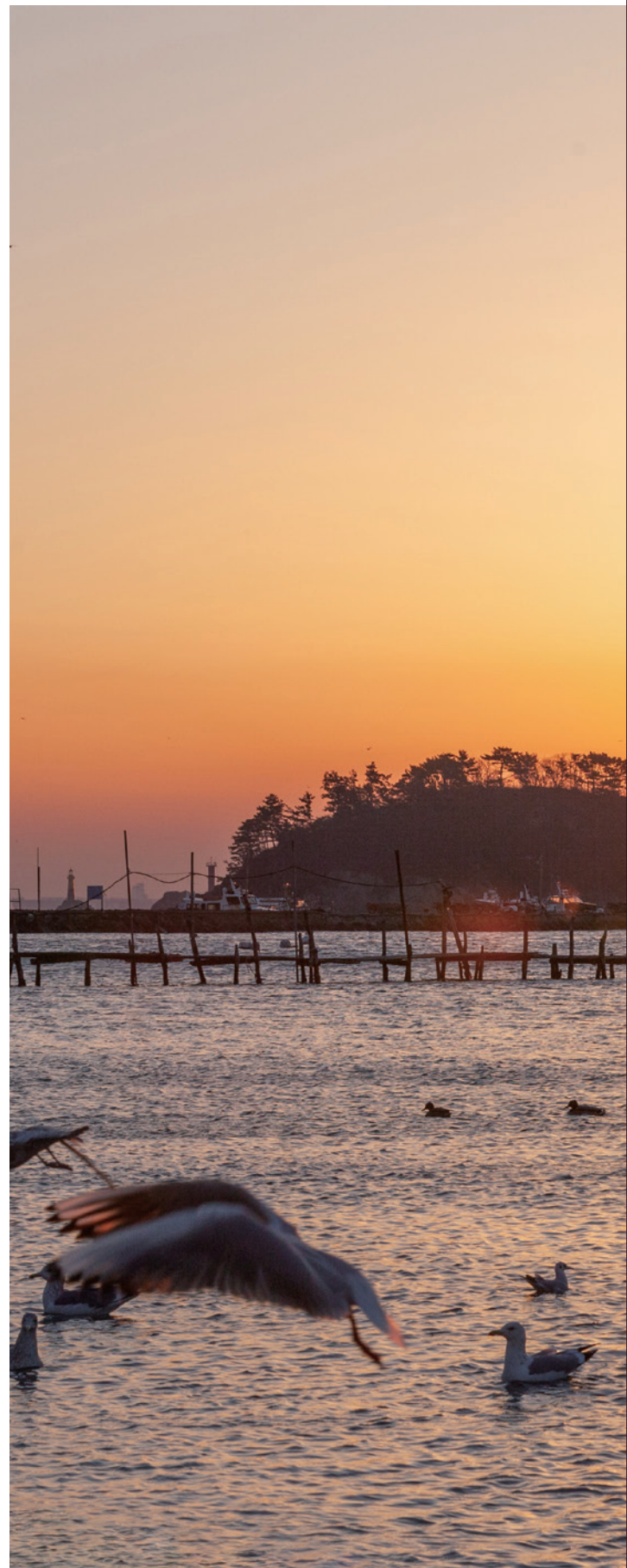
inside FINANCE

- 18 국내 금융제도 현황
‘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20 특화금융시장 동향
선박 및 선박금융시장 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중서

inside APPENDIX

- 24 부산 일반 현황
- 25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26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부산국제금융진흥원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31-0296 FAX. 051-633-0398 www.kbf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51. 636. 1215 www.ggad.co.kr





친환경 시대의 해양금융과 부산의 역할



해양금융연구소 대표
이재민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지구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나 그 중에서도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이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C 미만으로 억제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해운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전체 온실가스의 2~3%를 차지하여 일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배출량의 비중보다도 선박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은 어느 다른 산업보다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운의 탈탄소화 조치는 광범위하고 강하게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해운을 관장하는 유엔의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선박 운항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정하고 해운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IMO는 2023년 7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80)에서 해운사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당초 50% 감축에서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최소 20% 감축, 2040년까지는 최소 70% 감축 등의 세부 일정까지 정해 놓았다. 구체적 실행 조치의 하나로 작년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 지표(CII)의 이행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선박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거로 5가지 등급을 매겨 2년 동안 하위 D, E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박들은 국제 항해를 금지시키는 조치이다. 결국 탄소 배출이 많은 해운사들은 구형 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을 새로 구입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다.

IMO 규정이 전 세계 해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 세계 각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영해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지역은 EU로 EU는 IMO 규정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규칙들을 제정하여 EU 지역 내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강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024년부터는 해운을 대상으로 EU ETS (탄소배출권) 제도가 시행된다. 탄소배출권은 탄소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분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해운사들은 탄소 배출에 따라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산업에 대한 탈탄소화 강제 조치들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운사들도 온실가스 감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제적 규제들 말고도 해운사들의 고객인 화주들이 자신들의 탄소 중립 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선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 CMA CGM 같은 세계적 대형 선사들은 메탄올,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해운을 포함한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추진 선박들을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으로 바꿔야 하는 해운 부문에 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의 94%가 화석연료 추진 선박인데 이를 모두 205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의 대량 생산과 유통에 대한 투자, 그리고 새로운 병커링 시설과 육상 전기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 항만의 신규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세계 해운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이러한 투자금액들을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추산으로는 해양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2050년까지 1.4~3.4조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려면 금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선박에 대한 투자시 일반적으로 선주는 자기자금으로 2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타인자본으로 조달한다. 즉, 금융의 지원 없이는 선주의 친환경 선박의 구입은 불가능해 진다. 또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의 대량 생산 역시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이 들 연료는 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것이고 또한 미래 선박 연료로서 안정적 수요가 보장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융기관과의 위험 분담을 원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선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항만의 인프라 건설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진다. 싱가포르의 선박 탈탄소화의 중간 단계 연료인 LNG 병커링 시설 건설에 발 빠르게 투자하여 현재 아시아의 LNG 병커링 허브로 자리 잡았다. 향후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완전 새로운 개념의 연료에 대한 병커링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항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항만의 탈탄소화 경쟁 역시 누가 경쟁력 있는 금융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해양금융의 수요는 향후 상당 기간 기록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양금융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부산은 2009년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로 선정되어 그동안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컸다. 특히 파생금융과 해양금융에 특화한다는 전략 하에 부산에 해양금융 기반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 담당부서가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라는 이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8년에는 해양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금융 거래는 부산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집적 이외에도 부산은 해양금융 도시로의 완벽한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부산항은 국내 유일의 세계적 항만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물동량 처리 기준으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제 해운사들이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조선소들이 부산 울산 경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중심이 부산이다. 이들 조선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453억 달러의 선박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막대한 선박금융 수요가 부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조선소가 전체 선박수주 점유율은 중국에 뒤지나 LNG,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수주에서는 중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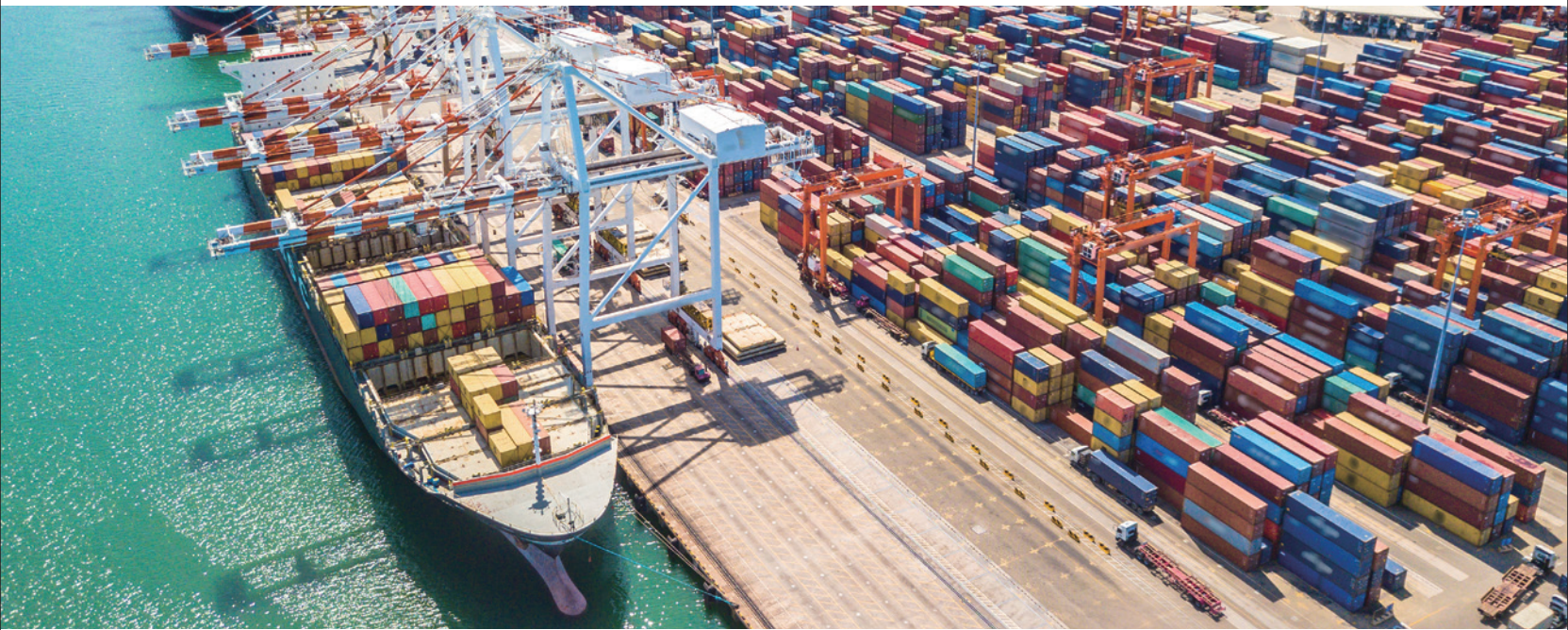
이처럼 부산이 해양금융 발전에 필요한 금융기관, 조선소 등의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금융도시에 비해 여전히 국제적 인지도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부산은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라는 호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해양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친환경 시대의 부산이 해양금융 중심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금융의 육성이 시급하다. 앞서 언급한 부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금융기관들은 모두 정책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정책적 목적의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책금융기관들로만 구성된 금융중심지는 세계 아무 곳에도 없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금융기관들의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양금융은 대부분 거래가 비거주자와 달러로 이루어지는 국제금융이므로 해외 금융기관들의 부산

유치는 필수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된 이후 아시아 시장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이때 이들을 부산에 유치해 오는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문제는 국내 여러 가지 제도가 인센티브보다는 규제에 치우쳐 해외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해양금융 중심지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 비즈니스 활동 등에서 최소한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제 감면, 금융회사 설립 및 운용상 규제 완화 등은 기본적 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규나 금융제도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무언가 부산만의 차별적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부산에 해양금융 특구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에도 부산에 금융특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기는 했으나 타지역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금융특구가 아닌 해양금융에 국한한 특구라면 해양금융과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의 반발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부산의 해양금융 특화 발전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산이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사항으로 대체금융의 육성을 들고 싶다. 선박금융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는 은행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은행 대출이 선박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 약 80%에서 2023년에는 65%로 감소하였는데 이 수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 협약 등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선박금융 포트폴리오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은행들의 비중 감소를 대체금융이 메우고 있다. 대체금융은 말 그대로 은행 금융을 대체하는 금융을 말하는데 선박금융시장에서는 리스금융, 사모펀드, 후순위 대출 등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리스금융은 중국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리스금융은 세계 선박금융의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다. 리스금융의 경우 리스료는 은행 대출 이자보다 좀 더 비싸지만 해운사 입장에서는 자기자금에 대한 부담없이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자금 원천이 된다. 친환경 시대의 해양금융에서는 리스금융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미래 친환경 선박 및 연료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아 해운사들의 선박 리스의 선호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리스금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을 전문으로 하는 리스금융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에는 선박리스금융사가 78개 사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에서 국내 선박리스금융을 선도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금융의 새로운 소스로 선박금융의 토큰증권발행 (STO)을 들 수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개인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디지털 금융이다. 최근 토큰증권과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면서 향후 선박 등 해양 분야의 자산에 토큰증권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과거 독일의 KG 펀드가 세계 선박금융시장을 주도한 것처럼 선박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개발 분야인 선박부문 토큰증권시장을 부산에서 조성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해양금융 발전을 위해 부산이 해 주어야 할 역할 세 번째는 해양금융 인력 양성이다.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는 부문으로 금융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해양금융과

관련하여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해도 당장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어느 금융기관이 부산에 올 수 있겠는가? 해양금융은 해운 실무지식을 기반으로 국제금융, 프로젝트금융 등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이제는 친환경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의 지식까지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대학에서의 금융 커리큘럼만으로는 해양금융 전문 인력을 키우기가 충분치 않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해양대에서 해양금융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앞으로의 해양금융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해 보인다. 부산시에서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해양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만일 부산에서 영국의 Bayes 경영대학원과 같은 국제적인 해양금융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해양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이미지는 국내외에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일정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은 금융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하는 부산에 있어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지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의 역량을 모으는 노력이 촉구된다 하겠다.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2023년 ~ 2025년)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비전·체계도

비 전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부산

목 표

국제적인 금융도시 도약 기반 구축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23.~'25.) 기간 내)

중 점 전략

- 집적된 정책금융기관·디지털역량 바탕으로 금융산업 여건 극대화
- 특화 금융해양·파생·전략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겟 금융사 유치
- 영업·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금융특구두바이·싱가포르 제도 도입 등 추진

추진 과제

①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 전략적 금융 네트워크 구축
- BIFC 인근 금융권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 선순환 금융투자생태계 강화
- 경영·생활환경 개선, 특구모델 추진
- 부산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

② 정책금융기관 집적 효과 극대화

- 정책금융기관 기능 강화·협업 지원
- 정책금융기관 추가 유치 추진
- 기술혁신 지원 기반 기술금융도시 조성

③ 아시아 디지털금융중심지 도약

- 디지털 금융도시 전초기지 「D-Valley」 완성
- 핀테크기업 육성·유치
-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반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 디지털금융 핵심인재 양성

④ 해양파생금융 혁신

-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기반 강화
- 특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 녹색금융 성장기반 구축
- 녹색금융 중심 파생금융 활성화



2023. 9. 11.(월) ~ 9. 15.(금) 런던 IR

장 소 런던

참여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Z/Yen, Bayes Business School

- Agenda
- 지자체·금감원·금융기관 공동 런던 IR 참여를 통한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 금융 관련 글로벌 컨설팅기관(Z/Yen)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GFCI 지수 관련 논의
 - 런던 금융특구 시장 당선자 면담 등 금융 교류 · 협력사업 발굴 논의



2023. 10. 16.(월) 시카고 IR

장 소 시카고

참여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제금융센터연합(WAIFC), World Business Chicago, FinTank, CME Group, John Lothian News

- Agenda
-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파악
 - 주요 국제금융센터 간 네트워킹을 통한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 및 협력 추진



2023. 10. 17.(화)~10. 20.(금) WAIFC 뉴욕 연차총회

- 장 소** 뉴욕
- 참여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제금융센터연합(WAIFC), World Business Chicago, FinTank, CME Group, John Lothian News
- Agenda**
- WAIFC 연차총회 참석을 통한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입지 제고
 - 2025 WAIFC 연차총회 부산 유치 의사 표명
 - 이명호 원장 WAIFC 이사 취임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여성 금융인 서약(Women in Finance Pledge)’ 서명 참여



2023. 11. 14.(화)~11. 17.(금) 싱가포르 IR

- 장 소** 싱가포르
- 참여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광역시, Global Fintech Institution, Singapore Fintech Association, Bank of Canada, 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QBE Insurance Group, ING 은행, UIB손해보험중개, KB글로벌핀테크랩
- Agenda**
- 싱가포르 금융기관 대상 IR 및 2023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 참여를 통한 부산진출 관심 기관 발굴 및 유치 가능성 제고
 - 부산-싱가포르 간 핀테크 등 금융 협력 방안 논의
 - 싱가포르 금융중심지 현황 파악 및 벤치마킹 정책 발굴



2023. 12. 3.(일)~12. 7.(목)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 장 소** 두바이
- 참여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WAIFC, Z/Yen, TheCityUK, City of London, Finance Montreal, Casablanca Finance City Authority, Frankfurt Main Finance, Kigali Financial center, Jersey Finance, ING은행 등
- Agenda**
- COP28 컨퍼런스 참석으로 지속가능금융 중심지로서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입지 제고
 - WAIFC 회의 참석을 통하여 WAIFC 금융센터 및 Z/Yen과의 협력과 BIFC의 국제적인 입지를 제고
 - FC4S 포럼 참석을 통한 주요 관계자 네트워킹 및 향후 업무 협력 방안 논의
 - 두바이 금융중심지 정주여건 파악 및 벤치마킹 정책 발굴
 - 타(他)국제금융센터의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성 동향 확인



1

2023년도 부산금융박물관로드 자원봉사자 수료식 및 발대식 개최

일시/장소 2023.7.4.(화), 2023.12.28.(목) / BIFC 63층 라운지

참석자 40여명

주요내용 - 2023년 상반기 박물관로드 자원봉사 수료 및 2023년 하반기 박물관로드 자원봉사 발대식 개최
 - 2023년 하반기 박물관로드 자원봉사 수료 및 2024년 상반기 박물관로드 자원봉사 발대식 개최



2

2023년도 부산선박금융연구회 해운시황분석대회 개최

일시/장소 3회 2023.7.14.(금), 4회 2023.11.18.(토)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

참석자 40여명

주요내용 부산 대학생 선박금융동아리인 부산선박금융연구회 해운시황분석대회 개최 지원



3

2023 부산금융중심지 포럼 (부금포)

일시/장소 - 제7회: 2023.10.4.(수) 14:00 ~ 17:00 /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BIFC 39층)
 - 제8회: 2023.12.20.(수) 14:00 ~ 17:00 /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BIFC 39층)

주관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참석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사원기관, 문가, 학계 및 업계 인사 20인 내외

주요내용 - 제7회: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구자영 기획재정부 과장)
 - 제8회: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전략, 부산 핀테크허브 케이스 스터디



4

제2기 부산금융중심지 서포터즈 성과보고회 개최

일시/장소 23. 10. 13.(금) / BIFC 금융진흥원 회의실

참석자 12명(내국인 9명, 외국인 3명)

주요내용 서포터즈 활동성과 발표



5

「금융중심지 육성 제1차 토큰증권 전문가 포럼」 개최

일시/장소	2023.11.3.(금) 14:00 ~ 16:00 / 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
주 제	국내 토큰증권의 이해 및 활성화 제언
발 표 자	김성무 본부장 (SK증권 Digital사업본부)
사 회	이재호 박사 (KRX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주요내용	-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분석 - 국내 토큰증권 발행 관련 현황 및 사례 (혁신 금융서비스 사례)



6

2023 부산금융주간

기간/장소	2023.11.9.(목) ~ 11.11.(토), 3일간 / 벅스코 제1전시장
규 모	70개사 160부스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벅스코, 한국거래소,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투자협회



7

Invest Korea Summit 2023

기간/장소	2023.11.07.(화) ~ 11.08.(수) / 부산 BEXCO 제2전시장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주요내용	- 전 세계 168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Invest Korea Summit' 부산서 개최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시 홍보부스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인센티브 안내 등 1:1 맞춤형 상담 진행



8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국계 금융기관 통합 개소식

일시/장소	2023.11.10.(금) 14:00 / 부산국제금융센터 D-Space(63층)
참 석	부산시 박형준 시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입주기업 대표 등
주요내용	(주)UIB손해보험중개, (주)라이나원 등 외국계 금융기관 2개사 통합 개소식 개최



「2023 부산 해양·금융 위크(Busan Maritime & Finance Week 2023)」 개최

기간/장소 2023.10.31.(화) ~ 11.2.(목) /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주최/주관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감독원, 마린머니,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내용 KOBC 마리티임 컨퍼런스, 금융감독원 해양금융컨벤션, 마린머니 한국선박금융포럼



서울 IB포럼 기관가입 및 참가

일 시 2023.11.9.(목)

주제 발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 평가>

주요내용 Seoul IB Forum 참가 & 기관가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무방문 및 금융중심지 정책지원 방안 협의

일시/장소 2023.11.9.(목) 14:00 ~, 17:00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베스트서울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실무방문 및 금융중심지 정책지원 방안 협의



제2차 금융중심지 육성 토큰증권 전문가 포럼 개최

일시/장소 2023.12.1.(금) 14:00 ~ 17:00 / 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

주 제 토큰증권 발행 사례와 쟁점 극복

발 표 자 박효진 부사장(세종텔레콤)

사 회 김홍배 교수(동서대학교 경영학과)

주요내용 전자증권법 등록 VS. 분산원장 등록,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분리 프로세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전자증권법 미러링 소개



13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및 금융 역할 세미나 개최

일시/장소 2023.12.12.(화) 14:00 ~ 16:00 /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한국산업은행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참 석 부산광역시, 한국산업은행, 국회, 부산시의회 등



14

「2023 BFC-KAFE International Symposium on Finance and Economics」개최

일시/장소 2023.12.13.(수) 09:00~18:00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층 KSD홀
주최/주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한국금융공학회
후 원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BNK투자증권, KB증권, 신한증권,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운용, S&P Global, NEWSY STOCK



15

「외국 금융기관 CEO 초청 세미나」 개최

기간/장소 2023.12.14.(목) ~ 12.16.(토) / 부산 일원(BIFC, 강서구, 동구 일원)
참 석 자 40여명
 - 부산시, 금융감독원, 국내 소재 주요 글로벌 보험사 관계자 등
 -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외국 금융기관 CEO
주요내용 세미나, 산업 시찰(북항·가덕도신공항 등), 환영만찬 등





UIB Korea 업무 소개

2023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다-스페이스(D-Space)에 입주를 마친 UIB Korea는 보험을 위한 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험을 헷징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 중개 및 위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보험 컨설팅사이다.

UIB Korea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며, 전 세계 17개 국가에 자리 잡은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TOP5 보험중개법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이홍수 대표의 취임 이래 연평균 30%의 고성장을 시현하며, 현재는 1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운영보험료 3억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UIB Korea만이 가진 선진화된 보험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해양·선박특화 금융 기능 강화, 보험정보기술(인슈어테크) 육성을 추진하여 새로운 분야의 금융 경쟁력을 부산에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UIB Korea는 2025년까지 국내 TOP3 중개법인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신시장/신상품 개척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1. Risk Management

전세계 항만, 공항, 교량 등의 사회공공 기반시설의 공사 현장에 서부터 다양한 산업의 운영 중의 위험까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가정 및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위험관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2. Insurance Consulting

현장 위험 조사 등을 통해 노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보험조건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목적물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 중 보험, 사업 운영 중 사고의 발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담보하는 운영 중 보험,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해상사업과 관련한 해상위험과 육상 및 항공에서 항해 사업 관련 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해상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의 자문을 제공한다.

3. Claims Services


불의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신속히 회수하여 사업을 복구하고 해당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클레임 서비스를 수행한다. 별도의 클레임 전담팀을 운영하여 보험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작업 진행 및 보험금 지급 시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 up으로 지급시기를 단축한다.

4. Global Training & Seminar

UIB Kore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세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글로벌 교육 및 세미나의 기회를 고객과 함께 나눈다. 매년 런던에서 주최하는 International Treaty Reinsurance Seminar,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SIRC(Singapore International Reinsurance Conference), 두바이에서 열리는 Energy & Construction Training Course 등 고객분들과 UIB 임직원들이 보험시장 및 각 산업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지원한다.

5. Reinsurance Services

재보험이 필요한 단일위험 (Single Risk)을 대상으로 임의 재보험, 원수보험사 및 출재사의 인수 위험 포트폴리오 (Risk Portfolio)를 대상으로 특약 재보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UIB Korea는 기본에 충실한 최고의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Back to Basics

UIB Korea는 작은 차이가 만드는 큰 변화의 힘을 믿으며 기본에 충실한 흔들림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Professionalism

UIB Korea에는 업계 최고의 석·박사 등 전문가 집단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여 있다.

Team Effort

UIB Korea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너지를 창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Dedication

기본기 탄탄한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UIB Korea의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다.

‘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육·안내를 진행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12.18 가동)을 통해 의무화에 따른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 금융감독원, 주요 공시정보(81종)의 분석·활용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 추진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동 방안에 따르면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

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①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②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25일)」 중

(기본방향)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1단계 의무화 (‘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 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2단계 의무화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영문공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공시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시 기반 기계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유관기관은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및 안내를 병행해 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24.1.1일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 공시담당자가 의무화 대상서식에 해당하는 국문공시 작성시 영문공시 제출의무 안내(팝업)
** 상장법인은 면책문구를 선택하여 영문공시에 반영 가능

특히,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12.18일부터 제공한다.

* 국문·영문전자공시시스템(국문·영문KIND) 및 제출시스템(Filing)

양 기관은 AI 번역 인프라를 고도화해 상장법인 영문공시를 보다 확대하고자 지난해 10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거래소는 그간 축적된 국문·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문공시의 영문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 이를 통해 일반 번역기와 다르게 “감자방법”을 “Method of capital reduction”로 번역하는 등 국문공시의 영문번역에 특화된 결과를 보여줌

이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향후 ①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②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영문 DART에서 서식의 국문 레이블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화면 예시

* 국문은 실제 공시 문안 중 선정, 영문은 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결과



한국거래소의 풍부한 국문·영문공시 데이터와 파파고의 똑똑한 AI 기술이 만나 공시 전용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bundant Korean and English disclosure data of Korea Exchange is combined with Papago's smart AI technology to provide an AI translation service only for disclosures.

국문(Korean)	영문(Engl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6항의 감자기준일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 본 공시는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속회사 SpinX Games Limited의 자본 감소에 관한 사항이며, 본 감자 결정으로 인한 당사의 지분을 변동은 없음 - 상기 5. '감자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record date for capital redu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6 above may be changed according to the approval, mediation, consultation, etc. of the relevant agency - auditor's opinion and financial details related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parent or holding company - This disclosure relates to the capital reduction of SpinX Games Limited, a subsidiary in which the Company holds 100% of the shares,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Company's share due to this Decision on Capital Reduction - 5. The above 'Capital Reduction Ratio' was written based on the amount. - If a shareholder Waivers or loses the right to take over new shares, or a fractional shares occurs in the allocation of new shares, the method of handling 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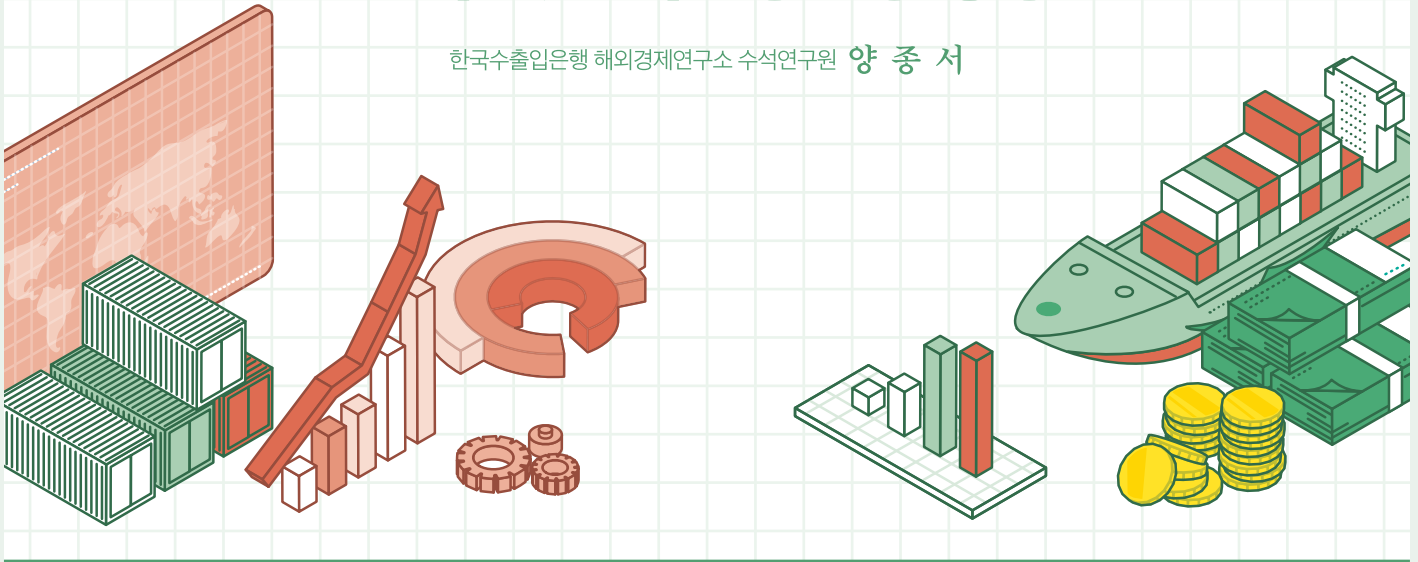
번역하기

해당 번역 결과는 Papago 번역 API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Papago 기계번역은 완벽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번역가의 번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하의 기계번역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 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02-3774-8743

Translation results are provided by using Papago's translatio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Papago's machine translation is imperfect and cannot replace a human translation.
Using the AI translation service is recommended for broadly understanding disclosure contents.
For inquiries: 02-3774-8743

선박 및 선박금융시장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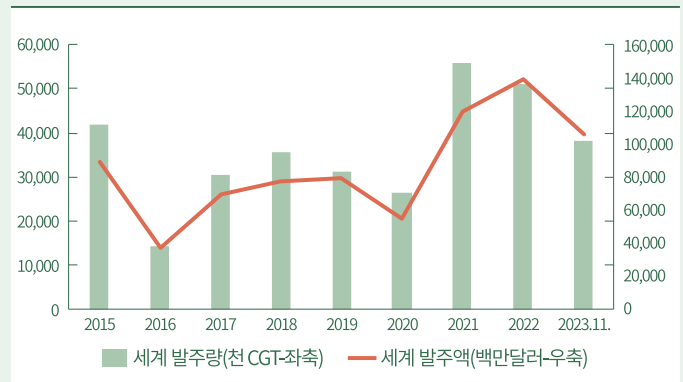


2023년은 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전략이 개정되며 국제적 탄소중립 요구가 대폭 강화된 해였다. 2050년까지 선사들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며 아직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중장기 선박운용 전략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조선과 중고선 거래 시장은 전년보다 감소한 수준이 나마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해운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상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선사들에 대한 금융제공이 원활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1. 신조선 시장 동향

2023년 신조선 시장은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발주 수요를 나타냈다. 11월까지 선박발주량은 3,809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발주액은 1,05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2%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망할 수준의 부진은 아니다. 여전히 중국과 국내 조선사들이 일감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수주잔량이 증가할 수준의 비교적 양호한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

세계 신조선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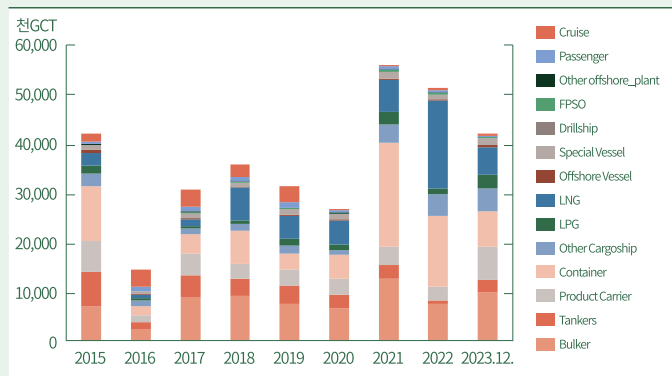


자료 : Clarkson

시황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년간 시황호조를 견인했던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LNG선의 경우 '23년도 66척의 발주가 나와 양호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카타르발 LNG선 물량까지 가세하여 사상 최대치인 186척이 발주된 실적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카타르발 2차 물량 중 일부가 '23년 연말까지 계약이 확정되지 못하여 신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물량이 '23년 말

까지 발주되었다면 약 90척 내외의 많은 물량이다. 컨테이너선 역시 금년 12월까지 700만CGT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23년 들어 '21년 이후 집중 발주된 신조선박이 대거 인도되기 시작하여 해운시황이 악화되며 컨테이너선의 '23년 신조 수요는 당초부터 별 기대감이 없었다. 그러나 '22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컨테이너선의 메탄올연료추진 기대감 등으로 생각보다 많은 발주가 이루어진 점은 다행스럽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운임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탱커의 신조선 수요가 반짝 증가하였고 유사한 이유로 LPG선의 발주도 활발하였으나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감소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계 선종별 발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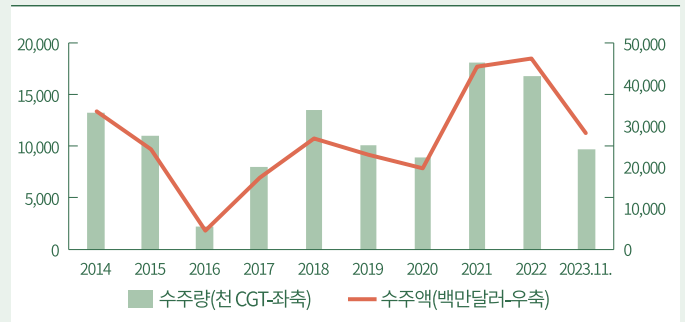


자료 : Clarkson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재구성
주 : 2023년 그래프는 12월 하순경까지 Clarkson의 발주기록을 집계한 수치임

한국 조선업계의 주력 선종인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 감소로 국내 신조선 수주량은 세계 발주량 감소폭 대비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11월까지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41.0% 감소한 963만CGT,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4.7% 감소한 2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CGT기준 수주점유율 역시 '22년 33%에서 '23년 11월 누적 기준 25%로 크게 하락하였다. 카타르 2차 LNG선 물량이 연내에 계약되지 못하여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듯하나 12월까지 수주와 미집계 수주를 합치면 약 1,100만CGT 내외의 수주실적이 예상된다. 모든 수치가 전년만 못 하지만 이 역시 부진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23년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시스템 불안정으로 인도 예정량을 밑도는 생산실적을 보여 이 정도의 수주만으로

도 수주잔량이 증가하였다. 수주잔량의 증가는 영업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이며 이 때문에 선가협상에 유리하여 조선사들로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발주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수주잔량이 증가하며 11월까지 선가는 전년 말 대비 9.4% 상승하였다.

한국 신조선 수주 추이



자료 : Clarkson

'23년도까지 비교적 양호한 신조선 시황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24년도 시황은 다소 부진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LNG선 수요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점을 지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3년간 큰 비중을 차지했던 컨테이너선의 신규발주는 해운시황이 어려워지며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진한 수요를 보였던 탱커와 벌크선도 '24년도에 갑자기 살아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해운업계는 '24년 말 또는 '25년 초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암모니아 엔진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를 함유하지 않은 이 연료가 업계의 탄소중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선사들의 기대감만으로 '25년 하반기 이후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4년도의 부진은 일시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2. 중고선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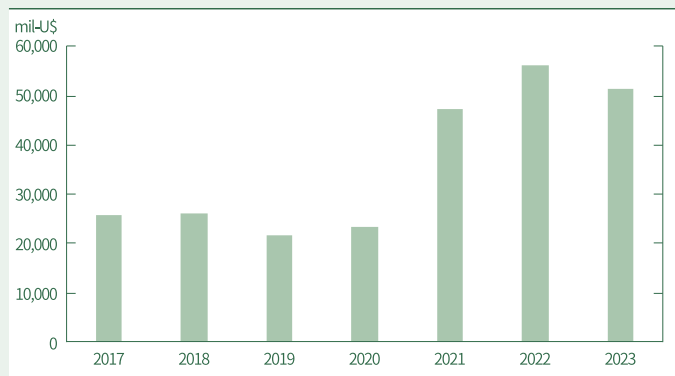
중고선 거래 시장은 '23년에도 매우 활발하였다. 56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던 '22년도 대비 약 9% 감소한 513

특화금융시장 동향

억 달러로 '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거래액을 기록하였다.' '23년도 거래액이 12월 중하순경까지의 집계로 추정되어 최종적으로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22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경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선 시장을 주도한 것은 탱커와 벌크선이다. 탱커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운임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선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신조선 발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쟁의 영향으로 증가한 수요에 선사들은 우선 중고선 도입으로 대응하는 듯하다. 수익성 제고로 투자여력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탄소중립 국면에서 여전히 신조선 투자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벌크선의 경우 상황을 향상시킬 이벤트는 없으나 탱커 선사들과 유사한 이유로 중고선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탱커와 벌크선의 '23년도 중고선 거래액은 각각 196억 달러와 126억 달러로 두 선종의 거래액은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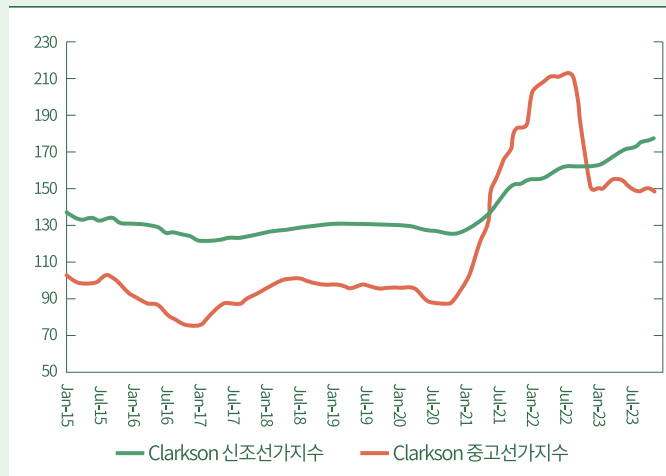
세계 중고선 거래액 추이



자료 : Clarkson

선박거래 시장에서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조선가 지수는 2021년 초 상승 추세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이나 변동 없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선가 지수 역시 유사한 시기에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22년 7월을 정점으로 당해연도 연말까지 31%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으나 이후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며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3년 12월 현재 신조선 가격지수는 178.36으로 21년 초 가격 상승이 시작된 이후 42% 상승하였으며 동 시기 중고선 가격지수는 149.07로 60% 상승하였다.

Clarkson 신조선 및 중고선 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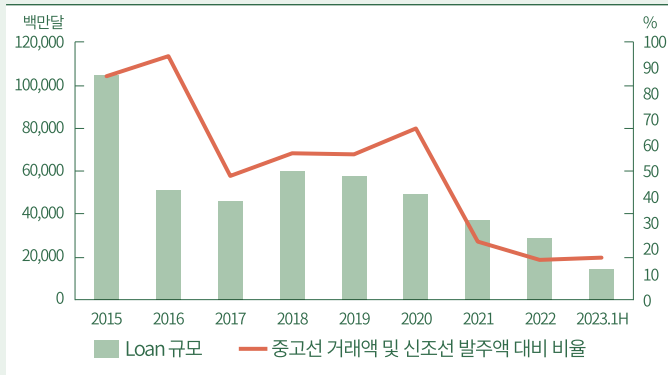
자료 : Clarkson

3. 선박금융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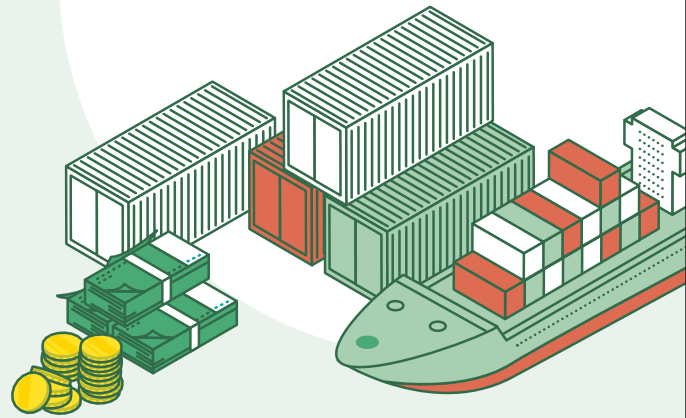
'23년도 선박거래 시장은 전년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거래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시장의 여건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선박금융 기관들 역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정점에 이르러 향후 인하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미달러화 기준금리는 5.25~5.5%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Marinemoney가 Dealogic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발표하는 세계 해양금융 신디케이트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신조선과 중고선 거래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총 대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조선과 중고선 거래 합산액 대비 비율 역시 20% 이하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은행의 신디케이트론은 선박 시장에서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축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149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축소 경향이 증가로 반전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 폭이 크지 않다. 또한, Marinemoney의 설명에 의하면 오히려 돈이 제공된 거래 건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우량한 대규모 거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중소해운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 은행권의 해양금융 syndicated loan 거래실적 추이



자료 : Marinemoney, Dealogic, Clarkson



Marinemoney에서 발간하는 Freshly Minted의 '23년 11월 30일 자에 눈에 띄는 기사 내용이 있다. Scorpio Tankers는 '22년 금리인상 시기 이후 금융권의 채무 잔액을 크게 줄였는데 특히, 이율이나 수수료가 높은 중국의 리스금융을 크게 줄이는 대신 그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권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이다. '21년 말 기준 총 금융채무자산은 31.6억 달러였는데 '23년 11월 8일 기준 18.3억 달러까지 축소시켰다. 동 기간 리스금융 잔액을 22.4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1/3 이하로 축소시킨 반면, 은행 대출은 5.7억 달러에서 10.3억 달러로 크게 증가시켰다.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개 대형선사의 상황을 시장 전체의 상황으로 비약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가 선박금융의 구조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대형선사들이 은행권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반면, 중소형 선사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더욱 고비용구조를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2023년 IMO의 중기전략 강화, 2024년 유럽 ETS 시행 등으로 해운업계는 점점 더 노후선 교체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많은 투자수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권의 자금제공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사들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경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게 느껴진다.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이후 선박에 대한 신규투자를 크게 늘리고 자국 선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암모니아 엔진개발까지 국제협력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며 14차 5개년 계획 등 주요 국가정책에도 선박의 탄소중립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지원 및 투자될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은 2021년, 자국 선사가 자국 조선소에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경우 선사, 조선소 모두에 장기저리 용자와 세제혜택을 주는 해사산업강화법이 시행되었다. 여기에 '23년에 발표된 녹색이행(GX)추진전략에서는 일본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해 150조 엔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선박도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취급되며 탄소중립 선박의 도입 비용으로 2.9조 엔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조 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금융 제도를 손질하는 등 실질적 자금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 해운업은 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것 외에 더 큰 대안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 선사들이 기댈 곳은 많지 않다.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업계는 한결같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유사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략자산으로서의 선박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진전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시작부터 호의적인 환경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아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새해에 우리 정부와 선박업계, 금융업계에 주어진 무거운 책무인 듯하다. ⚡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부록 INFO

- 부산 일반 현황
- 부산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부산 일반 현황

	기준	단위	통계	전국대비 비중(%)
GRDP 규모				
부산		십억원	104,297	4.8
부산·울산·경남	2023년 12월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310,612	14.3
전국		십억원	2,165,717	100

부산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0.3	0.9
관업제조업		%	17.0	2.9
건설업	2023년 12월 지역내총부가가치	%	5.1	4.3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76.9(73)	5.8(5.1)
전기가스증기업		%	0.7	16.2

부산·울산·경남 GRDP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1.6	12.8
광업·제조업		%	38	19.1
건설업	2023년 12월 지역내총부가가치	%	4.7	11.7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55.2(4.9)	12.2(10.1)
전기가스증기업		%	0.5	32.6

컨테이너 처리량(1월~11월)

부산	2023년 중	천TEU	21,121	76.9
전국		천TEU	27,469	100

거주환경(부산)

면적	2022년 말	km ²	771.3	0.8
인구	2023년 말	명	3,351,426	6.5
기온	2023년평균	°C	16	
강수량	2023년평균	mm	2,191.4	

외국인관련(부산)(11월 기준)

외국인 등록인구	2023년 말	명	49,434	
외국인 학교	2023년 말	개	6	
외국인 관광객	2023년 말	명	1,674,013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¹⁾

단위: 개

기관명	2021년 말	2023년 말	증감
합 계	1,977	1,927	-50
예금은행	495	477	-18
일반은행	379	364	-15
시중은행	184	173	-11
우리은행	44	42	-2
SC제일은행	13	12	-1
KB국민은행	53	51	-2
한국씨티은행	2	2	0
신한은행	35	29	-6
KEB하나은행	37	37	0
지방은행	192	189	-3
대구은행	5	5	0
부산은행	177	174	-3
제주은행	1	1	0
경남은행	9	9	0
외인지점	3	2	-1
야마구찌은행	1	1	0
중국공상은행	1	1	0
메트로은행	1	0(철수)	-1
특수은행	116	113	-3
IBK기업은행	41	39	-2
NH농협은행	60	59	-1
SH수협은행	12	12	0
한국산업은행	3	3	0
비은행금융기관	1,482	1,450	-32
수출입은행	1	1	0
신탁회사 ²⁾	555	537	-18
자산운용회사 ³⁾	573	558	-15
상호저축은행	28	27	-1
신용협동조합 ⁴⁾	47	47	0
상호금융 ⁴⁾	22	24	2
새마을금고 ⁴⁾	140	140	0
우체국 ⁵⁾	116	116	0

- 주 1) 2023년 말 기준, 출장소 포함
- 2)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신탁계정을 신탁회사로 지칭
- 3) 자산운용사 펀드상품의 판매점포수
- 4) 조합수(본소 기준) 또는 금고수 기준
- 5)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체신 취급국 및 지방우정청 제외

BIFC

INFO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

- 2007년 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년 04월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11월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울, 부산, 인천, 제주, 경기)
- 2009년 01월 : 해양·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 중심지 '서울' 지정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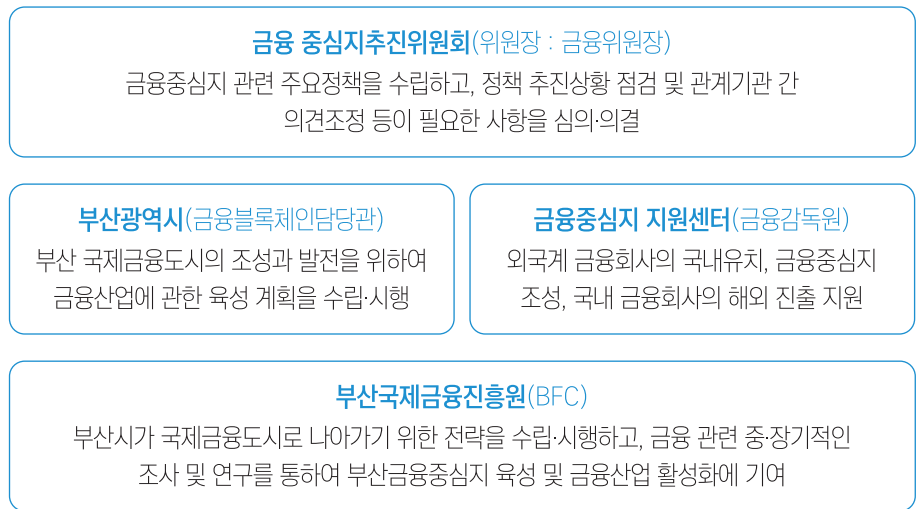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면적 : 102,352㎡
- 복합 사업개발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토지면적	24,856㎡	12,276㎡	10,292㎡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생활시설
건축규모	197,169㎡, 지하 4층, 지상 63층	183,132㎡, 지하 7층, 지상 49층·36층(U자형 2개동)	147,000㎡ 45층
사업기간	2008. 4 ~ 2014. 6	2015. 8 ~ 2018. 11	2020 ~ 2025(예정)
개발현황	2014. 12월, 입주완료	2018. 12월, 입주완료	-

- 개별 사업개발

구분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지하1층, 지상 4층	지하3층, 지상 23층
착공/준공	2009. 02 / 2011. 05	2011. 01 / 2013. 06	2011. 12 / 2014. 07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도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주요 일지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2009년 7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 플랜 용역 실시
- 2010년 8월, 부산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분야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0. 5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 2014년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복합개발사업(63층) 준공
※ 준공식 : 2014. 8. 22
- 2014년 말,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이전공공기관(5), 지역기관(3), 해양금융기관(4), 개별기관(3)
- 2015년 4월, 2020년까지 총 4개*부문 12개 과제 단계별 추진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 국제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금융 중심지 기본환경 조성)
- 2015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 2018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준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출범
- 2021년 5월, 국제금융네트워크 'FC4S' 정식회원 가입
- 2022년 3월,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착공

•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성과

- <해양금융부문>**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년 10월)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년 11월)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년 11월)
 - 한국해양보증보험 보험업 인가(2015년 6월)
 - 캄코선박운용 부산이전(2015년 6월)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년 4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 <파생금융부문>**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년 2월)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년 3월)
 - 금거래소 개소(2014년 3월)
 -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년 1월)
 - 청산결제본부 출범(2021년 5월)

• 지역 내 금융관련 전문인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2014년 9월)

• 국제 금융관련 교육연구기능 확충

-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소(2016년 9월)

•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외 이미지 제고

- 매년 2회 유럽·북미·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IR 실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 ▷ IOMA(세계조선시장협회) 총회 : 2013. 5. 5. ~ 7. 파라다이스호텔
 - ▷ FIA(국제선물산업협회)컨퍼런스 : 2013. 6. 12. ~ 13. 파라다이스호텔
 - ▷ ACSIC(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총회 : 2013. 11. 12. ~ 14. 조선호텔
 - ▷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 2015. 3. 26. ~ 29. 백스코
 - ▷ FATF/APG(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 2016. 6. 18. ~ 24. 파라다이스호텔
 -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 2018. 5. 21. ~ 25. 백스코
 - ▷ KOAFEC(한-아프리카장관급경제협력회의) : 2023. 9. 12.~9. 15. 부산 아난티 힐튼

• 금융 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 중심지 내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또는 소득세 : '25. 12. 31일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2항), 취득세 : '26. 12. 31.일까지로 연장(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BIFC 입주기관 현황

2023.4월기준

• 63층 메인빌딩

63층	한국씨티은행	2명
	BMI 그룹	
	요즈마그룹 코리아	
	UIB Korea	1명
	라니아원	
62~56, 55, 51~50층	한국거래소	496명
55층	IBK창공	20명
53층	캠코선박운용(주)	15명
	자금세탁방지위원회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13명
	신한은행	5명
	부산국제금융연수원	2명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7명
	코스콤 부산센터	2명
	대한상사중재원,아태해사 중재센터	2명
40~47, 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610명
63, 54, 39~36, 5층	한국예탁결제원	395명
35~30, 4층	한국남부발전	482명
27~23, 13~12, 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680명
22층	KDB산업은행	23명
22~21, 9층	부산테크노파크	32명
21층	한국무역보험공사	13명
20층	한국수출입은행	40명
19, 11~10, 6층	주택도시보증공사	440명
14층	신용보증기금	50명
9층	부산은행	6명
	한국증권금융	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명
8층	비스페이스	80명
2층	NH농협은행	10명
	우리은행	12명
	HF 보증자리 어린이집	
	푸른바다 어린이집	
1층	BIFC 어린이집	

• IFC부산

11층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5명
7층~10층	한국자산관리공사	149명

• 독립건물

기술보증기금	지상 15층, 지하 2층	331명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상 4층, 지하 1층	71명
부산은행	지상 23층, 지하 3층	933명

BIFC 인센티브 제도

■ 외국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국외 ▷ 부산)		(시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취득세 ²⁾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³⁾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³⁾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³⁾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³⁾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기관당 10억원 이내)			

■ 국내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 창업	지역본부/지점 신설	본사이전	지역본부/지점 이전
				(시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취득세 ²⁾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³⁾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³⁾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³⁾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³⁾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기관당 10억원 이내)			

※ 근거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

3)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inside 부산금융」 발간 목록



Vol. 1 2012년 5월(창간호)



Vol. 2 201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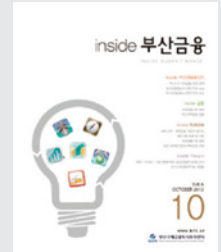
Vol. 3 2012년 12월



Vol. 4 2013년 4월



Vol. 5 2013년 7월



Vol. 6 201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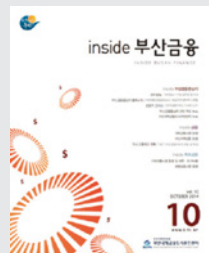
Vol. 7 2014년 1월



Vol. 8 201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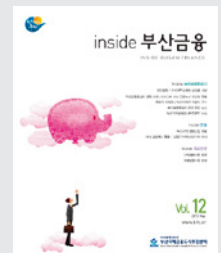
Vol. 9 2014년 7월



Vol. 10 2014년 10월



Vol. 11 2015년 1월



Vol. 12 2015년 5월



Vol. 13 2015년 8월



Vol. 14 2015년 11월



Vol. 15 2015년 12월



Vol. 16 2016년 6월



Vol. 17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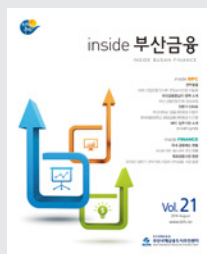
Vol. 18 2016년 12월



Vol. 19 2017년 8월



Vol. 20 201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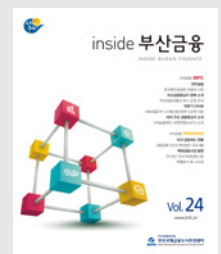
Vol. 21 2018년 8월



Vol. 22 2018년 12월



Vol. 23 2019년 10월



Vol. 24 2019년 12월



Vol. 25 2020년 12월



Vol. 26 2021년 6월



Vol. 27 2021년 12월



Vol. 28 2022년 6월



Vol. 29 2022년 12월



Vol. 30 2023년 6월

ALL ROADS LEAD TO BUSAN, KOREA

With waves reaching out to distant horizons,
Reaching out to the world,
Reaching out to the future,

Busan surges forward like the ocean's waves, shaping the global landscape.

For centuries, Busan has been a guiding light, illuminating Korea's path to progress.
Now, Busan sets its sights on a remarkable transformation,
aspiring to become the world's premier financial hub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

Experience the future in Busan today.

63rd Floor, the Apex of BIFC

Busan Metropolitan City offers up to 25 years of free long-term lease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on part of the top floor (63rd) of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

- 521m² of net floor area in office space is available for lease on the 63rd floor of BIFC
- Lease contract is renewed every three years after evaluation, for up to 25 years

There are also attractive incentive packages including tax exemption and subsid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following website <https://www.kbfc.or.kr/eng>
and the 3D virtual tour for free offices <https://my.matterport.com/show/?m=czPqrpCjJ7e>

